



/본도시락

기후변화·최저임금이 창업트렌드도 바꿨다

미세먼지로 소자본 배달가능업 확산 인건비 절감 대형·셀프업종도 '인기'

한반도의 기후가 급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자랑하던 기후를 가졌다. 하지만 2~3년 전부터는 여름 열대야에 이어 미세먼지, 황사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후 변화를 겪으면서 배달이 화두로 떠올랐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성비가 주목받아 셀프 운영시스템을 도입한 곳도 생겼다. 이처럼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인기 창업 아이템도 달라지고 있다.

안정훈 진창업컨설턴트 대표는 “기후변화에 이어 최저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창업 아이템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외출을 자제하는 소비자를 위한 배달 콘셉트인 소자본 아이템과 대형 매장의 가성비를 내세운 아이템으로 창업 시장이 나뉘고 있다”고 분석했다.

18일 배달의민족에 따르면 지난 1~3일 주문량이 전주보다 7.5% 증가했다. 요기도 지난 1~3일 배달 주문량이 지난달 8~10일과 비교해 25.4% 증가했다. 안 대표는 “올 여름에도 지난해와 같이 폭염이 지속된다면 배달주문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창업비용을 줄이면서 매출 안정을 찾으려는 예비창업자들이 배달 아이템에 높은 관심을 가지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프리미엄 한식도시락 본도시락은 계절



/진이찬방 김가네 셀프 운영시스템 적용 부스



/김가네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배달앱 “올여름 폭염 지속엔 주문 증가”

본도시락 친환경 용기 등 배달 한식 강자로 ‘산지직송’ 식재료 반찬 200여종

채소와 나물 등 한국인의 몸에 가장 잘 맞는 자연의 먹거리로 건강한 한끼를 제공하면서 배달 한식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본도시락은 또 전통팔도·자연·열량·별미 등 건강 키워드별 메뉴 구성은 물론 친환경 도시락 용기를 사용하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등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본사의 특별영업팀 운영도 가맹점 매출에 도움을 주는 요소다. 기업제휴나 단체 영업을 확대하고 대규모 주문과 제품 공급건을 본사에서 직접 관리, 배분해 주는 게 특징이다.

반찬가게 진이찬방도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데다 배달서비스 도입으로 창업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신선한 산지직송 식재료를 기본으로 200여종의 반찬을 고객 소비성향에 맞게 제공하는 게 장점이다. 진이찬방의 특징은 전국 유명 산지와 의 직거래를 통해 품질은 높이고 중간마진을 줄였다는 점이다. 저렴한 소비자가격을 유지하면서도 가맹점이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수익구조를 만들었다. 진이찬

방 관계자는 “배달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가맹점의 매출이 최대 2배 이상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다.

치킨과 떡볶이를 내세운 걸작떡볶이치킨도 높은 가성비와 배달 특징으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시그니처 메뉴인 떡볶이치킨(일명 ‘치떡’) 세트, 숯불김떡볶이 등은 맛과 가성비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빠른 입소문을 타고 있다. 여기에 자연 건조를 통해 쫄깃함을 유지하는 떡, 사골이 함유된 소스, 자연산 치즈, HACCP(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인증을 받은 부산어묵 등 엄선된 재료로 만든 떡볶이도 차별적 요소다.

이와 반대로 가성비를 내세우면서 관심받는 창업 아이템도 있다. 차돌박이전

문점 일차들은 대형 매장이지만 저렴한 가격에 차돌박이를 제공한다. 최근 차돌박이 인기로 원물이 부족한 상태지만 일차들은 안정적 공급 확보를 했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의 부담은 줄이고 마진을 남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일차들은 현재 가맹비와 교육비, 오픈몰폼비, 오픈홍보대행비, 계약이행보증금, POS, 로열티 등을 면제해 주는 7무 창업특전을 실시 중이다.

김가네는 최근 ‘프랜차이즈 서울’ 참가해 매장 셀프 운영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한 특별 부스를 선보였다. 무인결제 시스템인 ‘키오스크’를 기본으로 김밥을 더욱 간편하게 제조할 수 있는 라이스 시트기, 김밥 토핑기 등을 배치해 참관객들이 한눈에 매장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시스템을 선보인 것은 예비 창업자들이 간접적으로나마 매장 운영시스템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 것으로 참관객들의 높은 호평을 받았다. 김가네는 창립 25주년을 맞아 보다 젊은 감각으로 고객과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가네 관계자는 “김가네는 점주와 가맹본부와의 상생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지원과 상생방안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과징금’ 형평성 논란

>> 1면 ‘리베이트 제공...’서 계속

제도 폐지의 결정적 원인이 된 것은 형평성 논란이다. 2017년 복지부가 노바티스의 42개 품목에 급여정지를 결정했지만, 33종에 대한 과징금 551억원으로 대체했다.

급여정지 의약품에 대체할 만한 동일 제제가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령 때문이다.

그러나 그 중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경우, 동일 성분의 복제약(제네릭)이 있는데도 과징금으로 대체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다국적제약사의 오리진일 의약품은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만 퇴출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 큰 문제는, 애먼 환자와 의료기관에 주는 피해다. 의료기관은 갑작스레 급여 정지 의약품을 처방 목록에서 제외하고, 대체약을 구입해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 일정 기간이 필요한 만큼 급여정지 시행 기간에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환자들 입장에서 그동안 복용해 오던 약을 갑자기 다른 약으로 변경하는 불안감을 감내해야 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암 환자나 만성 질환자들은 오랜 기간 복용해오던 약을 갑작스레 바꾸는데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크다”며 “특히, 만일 대체약이 기존 약보다 비쌀 경우, 피해는 환자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으로도 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세경 기자 selee@

구광모체제 전환 마무리, 구본준 거취 촉각

희성전자 지분 취득? LG상사 분리? 등 분분

LG전자·디스플레이 주총



구본준 부회장, 사실상 ‘은퇴’ LG상사 광화문에 등지 ‘분리설’

LG가 구광모 체제 전환을 마무리하면서 경영에서 손을 떼 구본준 부회장 거취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15일 주주총회를 열고 ㈜LG 권영수 부회장을 기타비상무이사에 선임했다.

권 부회장은 이어진 이사회를 통해 2개사 이사회 의장도 맡게 됐다. 이미 LG유플러스에서도 같은 역할을 맡고 있던 상황이라, LG그룹 핵심축으로 자리잡은 셈이다.

권 부회장은 구광모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금성전자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 LG전자 최연소 사장과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LG화학 전지 사업본부장과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공격적인 경영으로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구 대표와도 오랜 기간 인연을 이어오며 지난해 ㈜LG로 자리를 옮겨 구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게 됐다.

LG가 구광모 대표 중심 경영 체계를 확고히 했다는 평가도 여기에서 나왔다. 지난해 정기 인사에 이어 주주총회에서



(좌) LG 구본준 부회장(오른쪽 두번째)은 지난해 故 구본무 회장을 대신해 적극적인 경영을 펼쳐왔지만, 구광모 대표 취임후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나 모든 자리를 내려놓았다. /LG전자

주요 보직 개편을 마무리하고, 경영진과 이사회를 분리해 경영 투명도를 높이는 데도 성공했다.

특히 이번 주총과 이사회는 사실상 구본준 부회장의 LG그룹 은퇴를 상징했다. 권 부회장이 맡게된 자리는 당초 구본준 부회장이 있었던 곳이다. 지난해 구 대표 취임 후 경영에서 물러나겠다고 약속한 후 8개월여만에 짐을 완전히 내려놓게 됐다.

LG그룹 계열분리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LG는 장사 승계 원칙에 따라 후계 구도가 완성되면 방계 그룹을 분할해왔다. GS와 LG가 바로 이렇게 나뉜 그룹사다.

구본준 부회장은 구 대표의 삼촌으로, ㈜LG 지분 7.72%를 보유하고 있다. 시가 기준으로는 1조원 수준이다. 당초 재계에서는 구본준 부회장이 희

성전자 구본능 회장과 지분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구본능 회장은 구광모 대표 친부로서 2017년 기준 희성전자 지분 42.1%를 보유 중이다. 희성전자는 2017년 기준 연 매출액 2조원 규모의 전자사다.

최근에는 LG상사 분리설에 힘이 실렸다. 지난 달 LG상사가 여의도 트윈타워를 떠나 광화문에 새로 등지를 틀었고, 15일 주주총회 후에는 트윈타워를 ㈜LG에 매각기로 했다. 이전에도 계열분리 회사들이 자리를 옮겼던 만큼, LG상사의 이동에도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실제로 구본준 부회장은 2007년 LG상사를 3년여간 경영한 바 있다. LG상사 자회사 중에는 내부 거래 비중이 많은 판토스가 있는 만큼, LG와 구본준 부회장이 서로 ‘윈윈’할 수도 있다. 이번 주총에서 이사회가 대폭 물갈이

된 것도 눈에 띈다. LG유플러스 하현회 부회장이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고, ㈜LG 이재원 통신서비스팀장이 새로 기타비상무이사를 맡았다. 이정회계법인 양일수 대표도 새로 사외이사에 선임됐다.

새로 부임한 윤춘성 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장도 겸임한다. 윤 대표는 1989년 럭키금성상사에 입사한 정통 LG상사맨으로, 구본준 부회장이 LG상사를 경영하던 2008년 정기 인사에서 임원 승진했다.

단, 낮은 가치는 걸림돌이다. LG상사는 18일 기준 시가총액이 6800억원 수준, ㈜LG 보유 지분은 2018년 3분기 기준 24.69%에 불과하다. 소액주주 비율이 61.97%에 달한다. 구본준 부회장이 ㈜LG 지분 1조원 수준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차이가 크다.

/김재용 기자 juk@